

2020년 세계 간호사의 해 ... 간호 가치 높이는 위대한 기회

“아시아 간호 한목소리 내며 상생과 협력 다짐”

1면서 계속

정보기술(IT) 발전에 따른 디지털 의료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간호대학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하며, 간호사 교육에 e-러닝을 적극 활용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간호사 이미지와 가치를 높이기 위해 언론매체가 간호사들을 지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백의의 천사 이미지는 더이상 간호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며, 드라마 등에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간호현황보고서와 관련해서는 각국에서 정확한 데이터(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간호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정책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ICN은 이번 아시아 워크포스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공동선언문(코워니케)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간호현안 해결 위해 한목소리 내야

한국, 세계 간호의 모범

포럼을 마친 후 참가자들에게 이수증이 수여됐다. 이어 포럼 기간 동안 대한간호협회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꾸민 영상물이 상영됐으며, 대표들은 유쾌한 웃음과 큰 박수로 화답하며 감사를 표했다.

하워드 캐튼 ICN 사무총장은 “이번 포럼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준 대한간호협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서 “여러분의 열정적인 참여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나눴으며, 다가올 2020년은 간호가 새롭게 도약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국 대표들은 “포럼에 참석해 다른 나라의 성공사례를 듣고 배우면서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간호현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낼 때 설득력이 높아지며, 정책활동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가 간에 서로 지지해줄 때 간호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간호사 출신 윤종필 국회의원이 참석해 각국 간호협회 대표들을 격려했다. 윤종필 국회의원은 “아시아의 간호리더들을 뵈게 돼 반갑고 감사하다”면서 “서울에서의 포럼을 통해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며 유익한 시간을 가졌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의 공동 목표를 향해 각국이 긴밀히 협력할 때 간호발전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아시아 국가들이 서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발전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시아 워크포스 포럼에 이어 아시아간호연맹 회의가 열렸으며, 내년 아시아 워크포스 포럼 및 아시아간호연맹 회의 개최국은 말레이시아로 정해졌다.

아시아간호연맹 회의 열려

대한간호협회 주최 ... 각국 현황 공유

아시아간호연맹(AANA: Alliance of Asian Nurses' Associations) 회의가 11월 23일 오전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열렸다. 연맹은 세계 보건 의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아시아 간호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국가 간 네트워크다. 매년 아시아 워크포스 포럼에 이어 회의가 열린다.

올해 회의에는 주최국인 한국을 비롯해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마카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완, 태국 등 10개국 간호협회 대표들이 참석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이틀 아시아 워크포스 포럼을 통해 각국의 현황을 공유하고, 간호가 당면한 도전과제와 우선순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면서 “올해 포럼을 통해 우리들은 아시아 간호라는 이름으로 더욱 공고한 연대



아시아간호연맹 회의에 참석한 각국 간호협회 회장들이 함께 자리했다(사진 위).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이 조계사에서 명상과 힐링의 시간을 보낸 후 기념촬영을 했다.



를 이룰 수 있었고, 간호를 발전시키기 위한 강한 추진력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포럼의 결실을 바탕으로 간호역량강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간호부문의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각국 대표들은 ‘널싱 나우’ 주제 아래 간호역량강화와 정책활동 현황을 공유했다. 간호법 제정 및 간호 관련 법령 정비, 정부 조직 내 간호정책수석(CNO) 확보, 대정부 정책활동, 간호리더십 교육, 근거기반실무, 간호사 경력개발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유엔이 발표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17개 중 건강과 웰빙, 양성평등,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등은 간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목표 달성을 위해 간호사들이 직접 기여할 수 있는 분야임을 함께 인식했다.

한국에서는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제2부회장이 현황 발표를 했으며, 간호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각국 대표들은 한국에서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되길 바라며 지지서명을 했다. 대표들은 “한국은 세계 간호를 선도해 나가고 있으며 국제적인 모범을 보이고 있는 나라인데, 아직까지 간호법이 없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간호법이 제정되길 진심으로 성원하고 지지하며 서명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각국 발표에 이어 ‘4차 산업혁명과 보건의료’ 주제로 고희동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교수가 특별강연을 했다. 내년 말레이시아에서 열릴 아시아간호연맹 회의 주제는 ‘널싱 나우 & 나이팅게일 챌린지’로 정해졌다. 회의를 마친 후 각국 대표들은 조계사를 둘러보고 ‘명상과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 내년 한·중·일 간호학술대회 개최

한·중·일 리더십 미팅이 11월 22일 오후 서울에서 열렸다. 아시아 워크포스 포럼을 마친 후 3개국 간호협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김영경 제2부회장, 일본간호협회 후쿠이 토시코(Fukui Toshiko) 회장, 중국간호협회 리 야오(Li Yao) 부회장과 리 쟁(Li Zheng)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미팅에서는 2020년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6차 한·중·일 간호학술대회’ 세부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간호학술대회는 2020년 11월 4~6일 열린다.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모든 국민의 간호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제 아래 간호가 건강, 젠더, 경제적 이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게 된다.

정규숙 기자 kschung@



글로벌 간호리더십 세미나 열려

국제 리더십 세미나가 ‘도전을 위한 글로벌 간호리더십’ 주제로 11월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윤종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했다.

이날 국제간호협회(ICN)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 사무총장과 간호인력문제 전문가인 제임스 뷰칸(James Buchan) 퀸 마가렛대 교수가 특별강연을 했다.

하워드 캐튼 ICN 사무총장은 “2020년은 세계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이며,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간호전문직의 가치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매우 특별하고 위대한 기회이며, 그 어느 때보다 간호리더십과 책임감으로 간호전문직이 인정받고 평가받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ICN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달성하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임스 뷰칸 교수는 “지속가능개발목표와 보편적 건강보장은 간호사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면서 “간호사를 늘리는 것은 비용지출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사들이 지속적으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유지(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각국 간호협회에서는 정책입안자들에게 근거에 기반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간호리더십을 통해 정부와 국민들을 설득하고 동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연내용 3면에)

정규숙·이진숙 기자



‘널싱 나우’ 캠페인 ... 간호사에 대한 투자 강화

나이팅게일 챌린지 적극적인 참여 독려

아시아 국가 간호협회들이 ‘널싱 나우’ 캠페인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나이팅게일 챌린지’에도 적극 참여키로 뜻을 모았다.

11월 21~23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워크포스 포럼 및 아시아간호연맹 회의에서 각국 간호협회 대표들은 널싱 나우 활동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대한간호협회에서 준비한 널싱 나우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며 결의를 다졌다.

널싱 나우(Nursing Now)는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인 2020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널싱 나우와 국제간호협회(ICN), 세계보건기구(WHO)가 함께 추진하며, 버데트간호재단(Burdett Trust for Nursing)에서 운영하고 있다. 2020년 이후 ICN으로 이관해 널싱 나우 활동을 계속 이어 나게 된다.

현재 100여개국에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으며, 대한간호협회는 2018년 11월 1일 ‘널싱 나우 한국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널싱 나우 공동위원장은 나이젤 크리스프(Nigel Crisp) 경과 셰라 플로우(Sheila Flou) 전 보스 와나 보건부 장관(간호사), 위원장대행은 메리 왓킨스(Mary Watkins) 영국 상원의원이 맡고 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이사로 활동하

고 있다.

널싱 나우 캠페인은 간호사의 역할 강화 없이는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달성할 수 없으며, 간호사를 충분히 배치하고 역할을 강화시키는 데 투자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널싱 나우의 비전은 다음과 같다.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는 데 간호사가 핵심적 역할을 한다.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에 간호사가 참여해 영향력을 발휘한다. △간호사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받고, 간호사의 지위를 향상시킨다.

널싱 나우에서는 캠페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활동으로 ‘나이팅게일 챌린지(Nightingale Challenge)’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간호사의 역량과 리더십 강화를 위해 투자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보건의료기관의 고용주들이 만 35세 이하의 간호사에게 리더십 및 전문성 강화 교육을 제공하도록 장려하는 활동이다.

2020년까지 전 세계에서 2만명의 차세대 간호사와 조산사들을 교육에 참여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정규숙 기자 kschung@